

# “5년간 우량종봉 선발 올인, 로얄젤리 생산량 3배 늘어”

3년 연속 흉작에 양봉농가 ‘시름’  
우량종봉 보급 등 위기 극복 앞장  
양봉업 한 길 승병권씨



“양봉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꿀 값이 좋아 힘들게 일하면 그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꿀 생산량도 줄고 재작년부터 연속 3년째 흉작을 맞고 보니 양봉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27년째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승병권씨(48)는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우량한 종봉 개발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일반 꿀보다 부가가치가 높지만 생산량이 일정치 않아 안정적인 소득을 낼 수 없었던 로얄젤리를 일반농가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생산해냈다.

승병권씨는 “일반 농가는 보통 서너 개의 벌통에서 50g의 로얄젤리를 생산하지만 우리 농장은 우량 종봉으로 한 개의 벌통에서 50g을 생산해, 최대 75g까지 생산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꿀은 하늘이 내린다고 하지만 로얄젤리는 노

력하는 만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서 “5년 전부터 우량 종봉을 선발해 온 결과 로얄젤리 생산을 3배 이상 늘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무 살 청년부터 30여년 가까이 양봉 일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최근처럼 어려운 시기도 없었다는 그는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다른 물가는 10배가 넘게 올랐지만 꿀은 2배 올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양봉업이 어려워질수록 애착이 가고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어려운 양봉농가들을 위해 우량 종봉을 계속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최선의 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병권씨는 로얄젤리뿐만 아니라 1.3배의 수밀력(꿀분비력)을 가진 우량 품종도 보유하고 있어 양봉협회에 신청해 좋은 상태다.